

25장 십자가: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초상

주제:

십자가는 한 사람이 자기의 존재 전체와 자기 소유 전체를 내어줄 수 있을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묘사.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이 되어, 우리가 그렇게 살고, 사랑하고, 존재하도록 촉구한다.

문제 제기:

갈보리의 십자가란 무엇인가?

타락의 대가를 지불한 곳이 십자가라는 전통적인 이해는 인간의 죄의식을 조장하며, 하나님의 징벌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고 자신과 남을 확대하는 초기증상을 오랫동안 유발시킨 것을 제외하고는, 모든 면에서 그 효력을 잃었다. 구출하는 신은 신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자아내지만 인간성의 확장을 초래하지 못한다.

십자가를 궁극적인 계시의 순간으로 보지 않고는 예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다.

논점:

예수 주변의 인물들은 예수에게는 질적으로 다른 진정성/매우 희귀한 완전함(integrity)이 있음을 느꼈다.

예수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안보체제(security systems) 울타리를 벗어나도록 촉구하는 분으로, 경계선 파괴자(a boundary-breaker)로 이해하면, 우리는 신성을 외부적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,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가장 깊은 차원으로서 찾게된다.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자유롭게 될 때만 신성에 들어갈 수 있다. 그것은 하나님의 의미를 살아내는 것이다. 예수의 완전한 인간성을 직시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신의 현존을 인지하는 것이다.

복음서 저자들은 예수가 온전한 인간 곧 그의 생명을 온전히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사람으로 기억했다. 십자가는 완전한 삶의 소유자가 자기의 존재 전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곳인 동시에, 이 행위로 인해 우리가 “하나님”이란 말로 뜻하는 바 모든 것이 가시화되는 곳이다.

질문:

1. 온전한 인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?
우리는 어떻게 예수처럼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?
2. “하나님의 사랑”이란 표현이 가지고 있는 유신론적(theistic)ニュ앙스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일까?
하나님을 “생명의 원천” “사랑의 원천” 또는 “존재 그 자체”라고 부를 때 <십자가는 “-----“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초상>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될까?